



## 꼼꼼한 관리가 경쟁력 ‘심안인쇄’ “직원과 원활한 소통·청결이 최대 장점”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쇄가 있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서울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심안인쇄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998년 10월에 설립된 심안인쇄(대표 지해용)는 후지 1색기를 도입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쿠라이 1색기, 고모리 2색기 등을 거쳐 현재는 시노하라 4색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카탈로그, 팸플릿, 작품집, 브로슈어 등 상업인쇄 전문 인쇄사로 진성 C&C, 태산애드컴 등 하청전문 거래처 80여 곳과 거래하고 있다. 지해용 대표는 “벤츠, 링컨 등 수입 자동차의 고급 인쇄물을 비롯해 인쇄품질에 민감한 패션, 가구 등의 카탈로그를 작업하고 있다. 이외에도 팸플릿, 작품집 등 다양한 종류의 상업인쇄물을 작업하고 있다”라며 “색상과 인쇄품질에 민감한 작업물을 비롯해 고품질 인쇄물의 철저한 색상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부터 CTP 출력실인 진성씨앤씨와 협업을 통해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꼼꼼한 인쇄기 관리가 최고 경쟁력

1988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올라온 지해용 대표는 이종사촌형이 운영하고 있는 ‘한진인쇄’

에서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됐다. ‘남자는 기술’이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인쇄사에 입사한 지해용 대표는 사촌인 대표와 지금은 고인이 된 공장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지해용 대표는 “당시만 해도 인쇄사에 갓 입사한 신입 직원들은 종이도 못만지게 했다. 인쇄노하우를 갖고 있던 기장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신입직원들에게 전수해주기 보다는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 주면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쇄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려웠다. 그런데 하루는 인쇄기장이 출근을 못하게 되자 공장장이 신입인 나에게 기장 역할을 맡겼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공장장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고, 나에게만 용기를 갖고 찍어보라며 말했다. 공장장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인쇄를 마무리했는데, 그때 인쇄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설명했다.

고품질 인쇄에 관심이 많았던 지해용 대표는 한진인쇄를 퇴사하고 오장동에 위치한 칠광사 등에서 인쇄에 대한 기술을 배운 뒤

1992년 인쇄기장이 됐다. 인쇄와 인연을 맺은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기였다. 지해용 대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쇄와 인연을 맺은 20살 때부터 회사와 집밖에는 모를 정도로 일에만 매달렸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기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당시 내 나이가 23살이었는데, 보조가 33살이었다. 그래서 갈등도 많았다. 보조의 경우 10년 동안 인쇄업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역할을 하는데, 23살밖에 안된 새까맣게 어린놈이 기장이라고 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요구하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나. 그래서 인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행동했다. 나 역시 이러다 보니 10살이나 많은 보조와 함께 일하는 게 마음도 불편했고, 시키는 일을 잘 따르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해용 대표는 1998년 심안인쇄를 열고 본격적인 인쇄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IMF로 인해 인쇄산업이 어려움을 겪던 때였으나 인쇄기계를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 중고기계를 사기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중 ‘후지1색기’를 겨우 도입할 수 있었다.

지해용 대표는 “당시에도 4도 인쇄물이 많았던 때라 1색기로 4도 양면인쇄를 하려면 8번을 인쇄해야 했다. 2천장을 인쇄하려면 4~5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그래서 2가지의 인쇄물만 작업하면 하루가 다 갔다. 하지만 인쇄물 품질은 지금보다는 1도로 짝이었던 그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 색을 하나씩 짝이면 무게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8번 인쇄를 하다보면 종이 신축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래 필요한 종이크기보다 좀 더 큰 종이에 인쇄해 끝을 잘라버리곤 했다”라고 회상한 뒤 “인쇄를 배우려면 기본인 단색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직원과 원활한 소통·청결유지 강조

인쇄 실무를 담당하다보니 인쇄기계 정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 인쇄물이 달라진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다. 그래서 수시로 기계를 점검하고, 청소작업도 꼼꼼히 하고 있다. 또한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시간이 날 때마다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지해용 대표는 “인쇄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기장의 실력에 따라 인쇄품질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기장이 어떤 자세와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좋은 인쇄물이 나온다.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작업의뢰서를 갖고 기장과 대화하고 함께 인쇄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다. 두 번째는 잔면지가 없어야 한다. 인쇄사 및 인쇄기에 먼지가 있으면 좋은 인쇄물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회사 곳곳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데 힘쓴다. 지저분하게 날리는 종이들이 없도록 하고, 잉크도 가지런하게 놓고, 청소를 한 걸레는 한 곳으로 모으도록 하는 등 청결을 강조하자 처음에는 반발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직원들이 제 뜻을 따라줘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안인쇄는 현재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2~3시간에 걸쳐 기계청소 및 정비를 하고 있다.

### “작지만 단단한 회사 만들 것”

중구 지역에 밀집해 있는 소규모 인쇄사들은 현재 인쇄물 작업단가 하락, 인쇄물량 축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안인쇄 역시 마찬가지다. 하청 위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인쇄물이 급격히 감소해 어려움이 많다. 2000부 이상 작업하던 한 조합의 소식지도 1500부로 줄었다가 최근에는 1000부로 줄었다. 지해용 대표는 “최근 한 인쇄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회사 운영체제를 2부제에서 단부제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단부제로 바꾸면 인원을 조정해야 하고 민하고 있었다. 규모가 큰 인쇄사도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처럼 작은 인쇄사는 더욱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회사는 직원들과 푹푹 뭉쳐 작지만 단단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안인쇄 연혁

1998년 심안인쇄 설립

2005년 사무실 이전

2007년 시노하라 4색기 도입

2010년 진성씨앤씨와 협력체제 구축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4길 28(인현동 1가 139-2)

전화 | 02-2278-4034 팩스 | 02-2278-4036



1. 심안인쇄 외부모습



2. 시노하라 4색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3. 심안인쇄에서 제작한 인쇄물들